

박영숙

새천년과 한국여성

박 영 숙(사랑의 친구들 총재)

I. 우리가 사는 세대

우리가 흥분과 기대 속에 새천년과 새 세기를 맞이한 것도 벌써 반년하고도 21일이 지났다. 논자들에 따라서는 2001년을 새천년이라고 주장하기도 하는데 어쨌거나 우리는 20세기의 경험을 거울삼아 21세기를 바로 살아야하는 책무를 지고 있다.

영국의 역사학자 에릭 홉스봄의 경고가 아니더라도 인류가 과거와 현재의 연장선상에서 세 번째 밀레니엄을 건설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부정하는 사람은 없다.

지난 100년의 역사는 갈등과 대결, 지배와 피지배, 경쟁과 소유 그리고 독점의 원리가 주도한 시대로서 인간의 자연착취, 강자의 약자억압, 생명경시 및 물질만능의 왜곡된 세상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인류의 파멸이 예고되고 있다.

새천년, 새 세기는 공생과 자율, 공유의 원리가 주도하는 평등, 평화, 화해의 세상이 만들어져야 한다. 인류의 지속생존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역사의 방향은 획기적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세계는 새로운 100년을 ①세계화와 정보화의 추세로 세계는 국경이 없는 하나의 지구촌화하여 지구정치, 지구경제, 지구환경의 세기로 ②국가주권이 약화되는 반면 지방정부의 역할이 중시되는 지방화와 국제기구, 경제기구, 민간단체 등의 사회조직의 영향력이 강화되고 ③20세기가 경제의 세기, 남성(강자)의 세기였다면 21세기는 삶의 질을 요구하는 환경의 세기, 여성(사회적 약자)의 세기로 전망하고 있다.

기대하고 있는 미래에 대한 꿈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패러다임의 전환은 준비하고 이루어내기 위한 수고를 아끼지 않는데서 현실화된다. 때로는 뼈를 깎는 고통이 따르기도 한다.

위기를 돌파하는 에너지는 사회중심부가 아니라 주변부에서 나오는 것이 인류역사의 법칙이라고 전제하면서 어떤 이가 말하기를 지금까지 주변부에 있던 여성들이 대안세력으로 부상하고 있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라고 한 것에 동의한다.

환경의 세기, 여성의 세기는 여성이 이끌어가야 한다. 여성의 힘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 그러면서 지적해 두는 점은 이 여성의 힘이란 생물학적인 것이 아닌 남녀를 불문한 개개인이 지니고 있는 여성성의 힘을 의미한다. 이 힘은 남을 생각할 줄 알고 남의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이해하며 더불어 사는 정신으로 인간에 대한 연민과 생명을 귀히 여기는 것을 의미한다. 실질적으로 이 힘은 현재 여성이라는 인간집단이 보다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모든 인간이 담지하고 있는 여성성이 한껏 발휘되었을 때 우리가 원하는 세상이 될 것이다.

한국여성의 오늘의 상황을 제한된 지면에서 다 짚어내기에는 역부족인 점을 감안하여

이 글에서는 고국을 떠나있는 한국 여성들과 나라사랑어머니회의 회원들에게 최근의 여성계의 움직임을 알리는 의미에서 부분적인 예시만을 하게 됨에 양해를 구한다.

II. 한국여성의 현주소

1)정부: <21세기, 이제는 여성!> 이것은 지난 7월5일부터 1주간 지키는 우리나라의 대통령 직속여성특별위원회가 주최한 제5회 여성주간 주제이다.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으로 남북의 화해무드가 싹트고 있는 오늘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여성의 지혜와 잠재력을 결집하여 21세기를 여성의 세기로 만들뿐만 아니라 한민족의 기회의 세기로 만드는데 여성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자는 다짐을 담고 있다. 기념식 대회사에서 촉구된 바는 인구의 절반인 여성의 사회참여에 대한 보장과 평가에 따라 여성의 미래는 좌우될 것이기에 여성의 시대는 여성들의 부단한 노력으로 새 시대에 대비하고 책임 있는 참여를 통해서 성취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그동안 여성의 권익신장과 사회참여의 확대와 여성인력개발을 위해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미취업자 훈련시범사업>,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 등의 제도마련과 여성정보화를 위한 대중교육, 여성공무원발전계획 등을 시행하고 있다. 최근 정부가 2000년도를 여성발전의 참된 원년이 되게 하기 위해 <여성부>신설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여성의 밝은 새천년을 전망하게 하고 있어 기대된다.

2)여성단체: 금년도 3.8 세계여성의날 기념행사로 한국여성단체연합이 개최한 제16회 한국여성대회의 주제는 <새로운 천년, 빈곤과 폭력 없는 세상을 위하여>이다. 이 대회에서 선포한 <새천년을 향한 여성선언>에서 여성들은 지난 20세기에 여성참정권이 보편화되고 다양한 사회적 영역에서 남녀평등이 일정하게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사회에서는 여전히 공식, 비공식 차별이 존재하고 있으며, 가족 내에서도 가부장제가 강고하게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데서 한국여성이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은 도전의 내용으로서 "신자유주의의 세계화는 여성에게 최대의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다. 빈곤의 여성화, 가부장제의 강화, 차별과 폭력의 증가 등 그동안 여성운동이 투쟁을 통해 쟁취했던 평등권과 사회보장장치가 무력화되고 있다. 또한 한국의 민주화는 기득권 세력의 저항으로 정체되고 있으며 수구 보수적인 사회분위기는 다원성과 남녀평등의 진전을 가로막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면서 다짐한 것은 "우리는 21세기를 여성의 시대로 예측해왔다. 그러나 여성의 시대는 저절로 도래하는 것이 아니다. 많은 도전에 직면해 있는 여성들이 주체로 나서서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위협을 뚫고 과감한 민주개혁을 통해, 21세기의 한국사회를 평등, 평화, 공생, 참여의 사회로 만들어 나가야 하는 것이다. 왜곡된 성역할의 정형화와 차별이 존재하지 않는 성평등사회, 자연과 인간, 인간과 인간간의 공존하는 삶이 가능한 환경 친화적 생태사회, 소수자의 권리와 참여가 보장되는 인권사회, 중앙집권과 위계를 넘어 분권과 자치, 자율이 보장되는 자치사회가 되어야 한다" 이다.

구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남녀공동참여사회, 열린 가족의 시대, 참여민주주의 사회, 가부장제를 철폐하고 여성운동의 새로운 지도력 창출 및 대안적 가치와 삶의 양식을 확산하는 진원지로서의 역할을 자임하고 있는데서 한국의 21세기의 여성운동의 방향을 짐작하게 한다.

3)언론: 최근 한국언론이 70세의 할머니가 남편을 상대로 이혼 및 1,000억 재산분할청구소

송을 낸 일을 보도하면서 공개한 우리나라의 이혼율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법원 행정처가 발간한 2000년판 사업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하루평균 113쌍 꼴로 이혼소송이 제기됐으며 피고 중 남편비율이 10년 전(43.0%)에 비해 21.2%가 높아진 64.2%에 달해 아내 쪽이 적극적으로 이혼을 요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보다 더 우리의 눈길을 끄는 기사는 1999년 전국 각 법원에서 재판으로 처리된 남녀 60세 이상인 부부의 황혼이혼건수는 102건으로 98년 85건보다 20%나 증가했다는 것이다(97년은 54건, 96년은 37건에 불과).

‘황혼이혼’이 증가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60, 70대 이상 여성노인들에게 의식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뒤늦게나마 자기의 권리에 대한 인식이 싹트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100년 간의 여성운동의 영향으로 인한 여성의식의 성장이 이들에게 삶에 대한 각성을 불러일으킨 것이다.

이들은 남편과 시집과 자녀만을 위해 자기희생을 강요라는 인식조차 하지 않고 살아온 세대이다. 이들에게 인간이라는 자각, 자신도 귀한 존재이고 자신의 인생 또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이 소중한 것이라는 깨달음은 단 하루라도 인간답게 살겠다는 결단을 할 수 있는 용기를 내게 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작년에도 한 건의 황혼이혼소송이 사회를 흔들어 놓았던 일이 있었다. 법원의 판결이 남은 인생이 길지도 않으며 피고가 아내의 보살핌이 필요하니 ‘해로하시라’고 한데 대해 여성들이 반발하여 들고 일어났었기 때문이다.

7월 9일의 73세 할머니의 이혼 및 재산분할청구소송은 ‘이혼하라’는 원고승소판결이었다 이를 두고 여성계에서는 시대의 변화와 요구에 보수적인 법원도 어쩔 수 없이 변화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환성을 올렸다.

문제는 변하지 않은 것이 있다. 남성개개인에게 뿌리 박힌 가부장적 사고이다. 이러한 현상은 황혼이혼 소송의 한 피고인의 행태에서 극명하게 드러난다. 아내가 이혼청구와 더불어 1,000억의 재산분할을 요구하자 같은 규모의 장학기금을 대학에 기탁한다고 공표한 것이다. 좋은 뜻의 재산의 사회환원은 환영할 일이다. 그럼에도 함께 일군 재산을 반려자에게 한마디 의논 없이 그것도 이혼을 요구하는 아내에게 주지 않기 위해서 일방적으로 처리한다고 하는 것은 용인되지 않는 것이다. 바로 이러한 행태가 황혼기의 여성들이 노년의 인권을 찾는 길로 몰아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을 뒷받침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사회의 가부장적 관습이며 그 대표적인 예가 아직도 우리나라 가족법에 자리하고 있는 <호주제>이다. 딸과 어머니, 그리고 아내를 제도적으로 차별하며 그로 인해 아들선호를 부추기고 그 결과 태어나기도 전에 여자아이는 죽임을 당해 오늘의 성비의 불균형을 (97 여 100명, 남 108.4명)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여성계에서는 호주제 폐지운동과 함께 아버지와 어머니의 성을 함께 사용하는 운동이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4)한국여성의 권한 척도 : 지난 6월13일에 실시된 제16대 총선결과 우리는 255명중 16명의 여성의원을 국회에 보내게 되었다. 그중 5명은 지역구 의원이며, 그 중에는 2명의 재선의원을 배출할 정도로 역대국회에 비해 장족의 발전을 이룬 성과였다. 국민의 정부 이래 고위직 공무원 배출에도 큰 진전이 있었던 것도 인정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엔에서 지난달 발간한 <인간개발보고서>에서 보면 우리나라의 여성의 정치, 경제적 의사결정 참여도를 나타내는 여성의 권한 척도 (Gender Empowerment Measure-GEM)는 조사대상 70개국 중 63위이다. 99년은 102개국 중 78위, 98년은 83위이었

다. 비율로 보면 우리의 여성의 권한은 상대적으로 더 낮아졌다.

모든 국민의 교육수준, 국민소득, 평균수명을 기준으로 측정한 인간개발지수(Human Development Index-HDI)가 174개국 중 31위인데 비해 여성권한척도가 63위(70개국 중)인 것에서 보는 대로 우리나라는 여성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나라임에 틀림없다.

앞서 지적한 바대로 우리나라 여성의 사회참여가 큰 폭으로 진전되고 있다고 하는데 역으로 세계의 순위가 해를 거듭할수록 뒤쳐지고 있는 것은 세계의 많은 나라들에서 눈부신 변화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핀란드에서는 여성대통령이, 불란서에서 여성의 의회 참여율을 50:50으로, 가까운 이웃나라 일본에서도 작년에 10여명의 여성부지사를 내는가하면 금년에는 여성지사가 선출되는 등 21세기를 여성의 세기로 만들어 가는 징후들이 보이고 있다. 현재 국가 원수나 정부수반을 맡고 있는 여성은 스리랑카의 찬드리카 쿠마라 통가 대통령 등 8명에 이르고 있다.

여성에게 부여된 권리의 수준이 그 나라의 실질적인 민주화와 변영과 발전의 척도라고 한다면 우리나라의 그 수준은 아직 멀었다. 지난 7월6일자 동아일보의 오피니언란에서 누가 지적한대로 우리나라가 이미 수년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입으로 선진국대열에 들어섰고 국내총생산(GDP)으로도 세계 13위 수준(99년도)의 한국이 174개국 중 31위의 <인간개발지수>와 70개국 중 63위의 <여성권한척도>와의 차이가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현실을 믿을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식자들은 창의성과 유연성이 강조되는 21세기 디지털시대를 맞아 우리 의식 속의 편견과 차별의식을 걷어내고 대신 남녀평등의 꽃을 피어내자고 한다. 그렇지 못하면 우리는 결코 정보화시대의 발전속도를 따라잡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한다.

여성의 정계 및 공직진출 부진, 낮은 경제활동 참가율(48.2%), 불안정고용증가 및 여성의 빈곤화, 인습에 가까운 가부장적 가치관(호주제도 등), 극심한 여성의 성상품화, 가정폭력의 증가, 여성의 정보 결핍현상 등을 두고 21세기의 한국여성의 미래를 비관적으로 전망하게 한다. 이러한 현실은 급속히 변화하는 세상을 살아나가는데 남성들도 마찬가지로 혼란과 갈등으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남녀가 조화롭게 공존, 발전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

수많은 딸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버림받아 태어나지도 못하는 현실, IMF 상황에서는 한 가정의 생계를 담당해야하는 여성가장임에도 불구하고 퇴직 영순위로 처리하는 일, 같은 교육을 받고 같은 일을 해도 임금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 아내는 남편과 같이 직장에서 돌아와서도 남편시중과 가사를 떠맡아야 하는 일 등, 헤아릴 수 없는 단순히 여자라는 이유하나만으로 불이익을 당해야 하는 것이 오늘의 한국에 태어난 여성들이 발 딛고 있는 현실주소이다.

여성정책의 역할 강화, 비영성 해방정책

Ⅲ. 한국여성의 당면과제와 활동

우리들의 할머니와 어머니들의 인간으로서의 자아의식이 생기면서 권리 찾는 일에 용단을 내릴 수 있을 만큼의 여성의 의식 변화와 보수적인 법조계와 언론계에도 변화의 바람이 서서히 일고 있는 현실을 지켜보면서 새 세기의 여성계의 움직임의 두드러진 현상의 하나를 지적한다면 이제는 여성의 문제는 여성 스스로가 주체적으로 해결해내겠다고 하는 점일 것이다.

예를 든다면 정부부처에 <여성부>를 설치해서 여성관련 행정을 통합 관장하는 일, 여성

2016년 제2회 정기국회 11월

212

들이 이제는 요구하는 자리에서 자기의 삶의 양식은 스스로 만들어가겠다는 의지의 발로로서 정치참여에 적극적인 노력, 낙후된 여성의 현실을 끌어올리기 위한 활동에 필요한 여성 기금조성에 나서는 일등이 그에 해당한다.

1) 여성부 설치: 한국 여성들은 우리나라의 구조적 불평등의 고착화로 국가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여성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으로서 오랫동안 정부에 여성부 설치를 희망해 오고 있었다.

국민의 정부 수립 당시 불행하게도 IMF의 여파로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추세에 밀려 여성계의 요구가 <대통령 직속 여성특별위원회> 구성에 머물게 되었다. 정부내의 여성정책 전담기구로서 제2정부부 또는 대통령 직속 여성특별위원회가 설치된 지는 10여 년이 지났지만 기구와 기능의 한계성으로 여성들이 원하는 만큼의 가시적인 정책효과를 가져오지 못하고 있었다.

금년도 대통령의 신년사에서 여성업무를 일괄해서 관리, 집행하도록 함으로써 21세기의 여성의 시대를 대비하는 방향제시가 신호탄이 되어 여성부 설치논의는 활발하게 진행되어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포함되어 개원중인 임시국회에서 통과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여성부 설치에 관한 한국여성단체연합이 제시한 개편원칙은, ①여성정책전담기구는 여성부로 되어야 하며(여성가족부, 여성청소년부, 여성가족청소년부 등의 논의가 있었음) 부의 장이 국무위원이어야 한다 ②여성관련법령제안권, 부령 제정권을 가져야 한다 ③여성정책의 주류화를 위해 정책총괄, 조정권한이 강화되어야 한다 ④남녀차별사안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준사법적 권한을 가져야 한다 ⑤지방자치단체에 계선조직을 설치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여성정책 집행력을 강화해야 한다 ⑥여성정책의 주류화를 위해 우선 기획예산처, 문화관광부, 정보통신부, 환경부에 여성정책담당관을 신설해야 하며, 현재 6개부처의 여성정책담당관실을 강화시켜야 한다 ⑦남녀평등과 여성의 사회참여확대를 위해 제정된 법(8개 법안¹⁾)을 집행하는 소관부서가 되어야 한다 ⑧21세기를 대비하여 민주적이고 열린 가족정책의 수립, 집행 및 정보화사회에 대비한 여성능력개발정책이 우선 시행되어야 한다 ⑨청와대 여성정책담당 수석비서관이 신설되어야 한다 등이다. 역으로 분석하면 현재까지 이러한 부분의 기능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음을 말해주고 있다.

업무범위로서는 ①여성정책의 통합조정 ②여성정책의 집행 ③차별구제기능의 강화 ④민주적이고 열린 가족정책 ⑤여성능력개발업무 ⑥대외협력업무 ⑦기획관리업무로 규정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부딪히는 문제는, 여성부 설치가 새로운 행정수요에 의해 신설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여러 부처의 소관업무를 재조정하여 설치하는 것이어서 부처간의 업무이관에 따르는 문제를 풀어내는 일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새시대의 여성정책의 수요증가에 대비하고 여성지위와 권익을 보편적 수준까지 향상시키기 위하여 <여성부 신설>은 새로운 세기, 새로운 시대의 중요한 과제라고 여성특위는 강

1) ①여성발전기본법: 여성부 설치에 대한 근거법령 ②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준사법권 부여할 수 있도록 개정 ③성폭력범죄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④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⑤모자복지법 ⑥윤락행위등 방지법 ⑦영유아 보육법 등 아동복지관련 법 ⑧남녀고용평등법 등 관련업무

조하고 있다. 작지만 강하고 효율적인 여성부가 탄생할 수 있도록 힘을 모으자고 특위 위원장은 호소하고 있다. 여성부가 신설되면 입법부인 국회에도 상임위가 구성되는 등 여성 관련업무에 일대 변혁이 전망된다.

2) 여성의 정치 및 정책결정기구에서의 참여확대: 20세기에는 개발과 발전이라는 명목으로 국민총생산(GNP)순위로 나라의 서열을 매겼다면 21세기에는 인권지수와 여성권한척도로 국가간서열을 가늠하기에 이르렀다. 인권후진국에 대해서는 주권조차 인정하지 않을 권리를 국제사회가 갖는다는 것을 1999년 워싱턴 회의의를 통해 합법화한 바 있다.

평화와 인권, 작은 것의 아름다움을 강조하는 새 시대 정신에 감응력이 높은 집단으로 여성이 부각되면서 세계각국은 정치영역을 비롯한 모든 영역에서 여성할당제를 도입하는 등으로 여성의 참여를 확대해 가는 것이 세계화의 요체이다.

지난 총선에 앞서 비례대표 의원후보 30% 여성할당제를 담은 정당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지역구 공천의 할당제는 아직 햇볕을 보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4.13 총선에는 한국선거사상 지역구 출마를 희망하는 여성후보가 가장 많았다. 고무적인 현상이었다. 그 결과 역사상 유례 없이 지역구 당선의원 5명을 탄생시킴으로 여성의원 의석을 16석으로 끌어올릴 수가 있었다. 그러나 여성들이 주장하는 30%에는 못 미치고 있다. 최근 프랑스에서 여성을 50% 이상 공천하는 법이 만들어진 것에 비하면 아직 갈 길은 멀다.

여성들의 정치참여의 중요성은 단지 인구의 반이라는 이유에서만이 아니다. 여성이 스스로 자기의 삶의 조건을 결정하고 만들어 가야 하기도 하지만 여성의 정치참여로 기존의 정치풍토를 정화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데 있다. 여러 연구에 따르면 여성들은 남성들보다 민주적이고 개혁적이고 도덕적이며 지각력이 있다고 한다. 여성들이 보다 억압을 받고 살아 약자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여성정치인들에 대한 평가를 보면 지방여성의원들의 경우 대부분이 적극성과 성실성에서 상위권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심영희 한양대 교수)

이러한 현상은 그동안의 여성정치참여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분위기를 바꾸어놓았고 특히 지방자치제의 실시는 여성들에게 중앙정치중심의 남성정치문화를 변화시키고 생활주변의 과제들과 지역의 문제들을 정치를 통해서 해결함으로써 이제까지 정치에서 소외되었던 일반시민, 여성, 노동자 등이 정치적 주체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다는 희망을 주기에 충분했다. (김정숙 한국여성정치문화연구소)

정책결정과정에서의 여성의 참여의 중요성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1998년 12월 현재 중앙 및 지방정부가 정책결정과정에서 민간참여를 도모하기 위해 설치운영하고 있는 총 1,206개의 위원회 중 여성참여위원회는 714개(59.2%)이고 전체 위촉위원 총 15,296명 중에서 여성위원 수는 1,896명(12.4%)이다. 1996년 9월 통계인 362개 위원회 중 115개(32%)와 총 위촉위원 26,053명 중 2,404명(9.2%)에 비하면 국민의 정부는 더 많은 위원회에 작은 수의 위촉위원 그리고 여성의 참여비율은 높게 나타나고 있다.

외양으로 보기에 상당한 진전이 있었음을 인정한다. 그러나 내용에서 보면 자문회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들 위원회의 민간참여 또는 여성참여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는 점은 간단히 인정하기가 어렵다. 관료주도, 행정우위, 남성우위, 강자의 논리 등이 불식되기 전에 진정한 의미의 참여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장애 요인을 제거

해내고 실질적인 참여를 이루어 내기 위한 노력에 각계 여성들이 나서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다.

여성의 공직진출에서 보면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49.7%의 여성인구 중 여성공무원은 27.8%이고 그 대부분은 하위직 공무원이다. 1996년 9월 현재 5급 공무원중에서 여성비율은 2.5% 교(원)장 중에서 여성의 비율은 10.3%로서 의사결정직에 해당하는 상위직에로의 여성진출은 많이 늘어났다고 볼 수 있으나 (여성정책 기본계획 - 1998-2002) 여성계가 주장하고 있는 30%선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정부는 2005년까지 30%선을 목표로 적극적인 유인책을 마련하고 전문직에의 여성참여확대방안 마련과 여건 조성에 나서고 있다.

우리나라의 여성고용의 현실은 남녀고용평등법이 제정된 지 20년이 되는 지금도 뿌리깊은 차별의식과 고용관행으로 여성들이 고용의 평등한 기회는 물론 그들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고용단계, 업무수행과정, 승진관행, 해직관계, 퇴직과 관련된 모든 과정에서 여성들은 차별을 받는다. 정부는 법 위반에 대한 감독 및 처벌만으로는 암묵적인 성차별의식을 개선할 수 없음을 인식하고 성차별행위에 대한 감독·처벌과 병행하여 노·사 및 사회일반의 의식개선을 위한 시책들을 편다고 한다.

여성의 정치 및 정책결정기구에서의 참여확대문제는 정부의 독단적인 노력으로 이루어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민간단체 즉 여성단체들과의 파트너십으로만 풀어낼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4000여 개의 여성단체가 조직되어 활동하고 있다. 이들 단체들은 여성발전 및 전체사회발전의 잠재력뿐만 아니라 실제 이제까지 여성단체들의 자발적인 활동이 이에 커다란 역할을 해왔다. 특히 여성단체의 활동은 여성에게 ①사회활동과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②여성관련정책을 모니터하며 ③여성관계법 제정과 개정운동 전개 ④여성의 의식고양을 위한 사업수행 ⑤여성계의 공동이슈를 선정하여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여론화 작업을 벌이는 등 여성의 정치세력화에 크게 기여해 왔다. (박인덕 한국여성개발원)

그러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여성단체들을 분류해보면 운동이념을 진보적 혹은 보수적으로, 또는 정치적인 입장차이 아니면 주 관심사의 다양성 등으로 여성운동을 한류음으로 설명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오늘의 여성들이 살고 있는 우리의 환경은 우리 선배들 그리고 현재의 활동가들에 의해 개선되었고 또 그들에 의해 개선되어 나가고 있다.

여성단체들의 사회적인 기여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조직의 취약성, 전문인력과 지도력 부족, 경제적 자립성 문제, 대중기반의 취약성 등이 지적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근본적인 문제는 재정문제이다. 우리나라에는 아직도 사회발전을 위한 시민운동을 지원하는 기부문화가 싹트지 않고 있다. 공익활동인 여성운동의 지원도 예외가 아니다. 아니 여성운동지원에 대한 인식은 더더욱 미약하다.

여성단체들이 안고 있는 제반문제들이 결국 전체여성의 발전 및 사회발전을 저해하는 근본문제로 인식한 정부는 1995년도에 제정된 <여성발전기본법>에 명시되어 있는 여성단체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책을 촉구하고 있으나 아직 미미하다.

3)민간여성기금조성: 지난해 12월 6일 한국여성기금추진위원회가 출범한 것은 만시지탄이기는 하나 여성들이 새천년을 여는 역사적인 발걸음으로 기록될 만하다.

“딸들의 밝은 새천년을 열지 않으시렵니까? 불평등과 편견에서 남녀의 조화로운 공존

속에 모성이 보호되고, 이 나라에서 세계의 여성지도자가 나오며, 각분야의 훌륭한 여성인력이 국가경제 발전에 동등하게 참여하는 세상, 특히 여성의 정치계 진출이 확대되고, 노동자, 농민, 빈민에게 힘과 희망을 주는 세상, 그런 세상을 만들고 싶습니다. 딸들도 아들들과 함께 21세기 한국을 떠받치는 기둥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 과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한국여성기금을 조성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이 기금은 우리나라 최초의 민간여성기금으로서 새시대 새천년의 새벽을 여는데 큰 몫을 할 것입니다.

우리 딸들의 밝은 새천년을 열기 위해 발족한 한국여성기금 추진위원회는 기금조성에 힘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투명하고 지속적이며 명예로운 기부문화 풍토조성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적인 작업에 지역과 성, 직업의 차이를 넘어 국민 모두가 함께 참여하여 새로운 시대를 준비해 나갑시다”(취지문 일부)라고 130여 개의 여성단체와 대통령 부인을 포함한 많은 원로 여성들이 운동의 이념과 정치적인 입장차이를 뛰어넘어 같은 목소리로 국민에게 호소할 수 있었던 것은 민간여성기금조성의 필요성이 그만큼 절실했기 때문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이 기금은 개인 국민으로부터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100만명의 참여로 1천억원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참여방법은 1만원 추진위원으로 가입하는 것을 비롯 무궁화회원(1억원 이상), 동백회원(1천만원 이상) 백합회원(100만원 이상) 개나리 회원(1만원 이상) 채송화 회원(ARS, 행사참여 등) 그리고 특별회원으로서 특수기금 운영을 위탁하는 것 등이 있다.

기금운영은 (재)한국여성기금 이사회와 산하위원회가 모금 및 분배업무를 담당하게 되는데 기금에서 발생하는 수익으로 해마다 사업중점에 따른 공모사업을 지원하게 된다. 재단의 직접사업은 <여성의 전당> 건립으로 한정되어 있다.

공모사업의 범위는 ①21세기 남녀평등 사회풍토 조성을 위한 의식개발사업 ②국가 경제발전을 위한 여성의 능력개발 ③소외계층 여성을 위한 활동지원 ④여성의 정치적 능력개발 지원 ⑤국제사회에서의 여성활동지원 ⑥여성운동 지원 ⑦특별사업으로 (가칭) 한국여성의 전당 건립 등으로 하고 있다.

여성의 전당
→ 21세기 여성

한국여성기금추진위원회는 경제계, 여성단체, 여성계, 학계, 종교계, 방송언론계, 법조계, 의료계, 정치계, 예술계, 교육계 및 기타부문의 남녀대표들 60여명이 위원회의 공동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명예위원장은 대통령부인 이희호 여사가, 수석위원장은 이화여대 명예총장인 윤후정 박사가, 집행위원장은 한국사회정책연구소 소장인 박영숙 그리고 감사는 참여연대의 박원순 변호사와 노금선 회계사가 담당하고 있다.

한국여성기금조성운동에는 남녀가 함께 참여하고 있다. 국민모두가 참여해야 하는 과제이기 때문이다. 법조계 공동위원장 중의 한 분이신 한승헌 변호사(전 감사원장)는 “친여세력-親女勢力이 됩시다”라는 글에서 “여성문제는 결코 여성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시대의 여성이 아직도 차별을 받거나 열악한 환경 속에 놓여있다면 그것은 곧 남성의 부끄러움이요, 남성이 해결해야 할 숙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저는 <한국여성기금>의 확보도 곧 여성만의 일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진정 건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갈망할진대, 국민의 “절반”에게도 공평한 미래를 보장해줄 수 있는 큰 밑천을 마련하고자 하는 이번 여성기금의 모금에 남성 여러분의 자발적인 참여가 아주 절실합니다. 이번 계제에 우리들 남성 모두가 ‘친여세력’이 되어 여성의 미래를 위

해서 힘을 모아줄 것을 간곡히 당부합니다.

그것이 바로 남성 자신을 위해서도 큰 축복이 되리라는 것을 저는 확실히 보증합니다.” 라고 하는데서 한국여성기금 조성에 참여하는 남성 추진위원들의 참여의도를 엿볼 수 있다.

한국여성기금추진은 현재 지난해 12월 28일에 재단법인으로서 행자부의 인가를 취득하였고 현재 회원모집의 전국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활동중으로 현재로서는 출발에 불과하지만 1000여명의 회원들이 자신이 회원으로 가담하는 동시에 회원모집에 나서고 있다. “평생에 한번, 자신을 위해, 딸들을 위해 1만원을 여성기금으로!”라는 표어와 함께 여성기금추진 운동은 전개되고 있다.

여성들이 스스로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활동중에서 최근의 대표적인 움직임으로 세 가지 예를 들어 제시하였다. 우리나라의 4000여 개의 여성단체들이 다각도에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모든 것을 이 글에 담을 수 없었던 것은 유감이다. 그들 중에는 통일문제와 관련된 평화운동, 지구환경보전과 지역사회 녹화를 위한 환경운동, 소비자운동, 성폭력추방을 위한 운동, 성차별제거운동, 건강한 먹거리를 위한 운동 등 여성들의 활약은 높이 평가받고 있다. 이들의 힘으로 우리나라와 지구의 반은 떠받쳐지고 있는 것이다.

IV. 나라사랑어머니회의의 제언

옛 어른들은 태어난 아이의 첫 돌을 맞이하기 전까지 아이에 대한 불안한 마음을 떨칠 수가 없었다고 한다. 사회의 어떠한 조직도 일정기간을 두고 그 조직의 미래를 짐작한다고 한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나라사랑어머니회 -Global Children Foundation>가 창립 2주년을 맞이했다고 하는 것은 확실한 전망을 가능하게 하는 계기가 된다고 믿어서 축하하지 않을 수 없다.

오는 8월 10일이 되면 나라사랑어머니회의의 측구로 창립한 <(사) 사랑의 친구들>도 창립 2주년을 자축하게 된다.

이 두 단체는 우리나라에 밀어닥친 IMF의 여파로 갑자기 늘어난 굶는 아이들의 먹거리를 지원하기 위해 미국과 한국의 우리나라 어머니들의 따뜻한 정으로 만들어진 기구라는데 공통점이 있다.

양 기구가 활동을 시작한지 2년이라는 기간동안 국내외 상황의 변화로 활동의 내용도 그 대상선정에는 변화가 생기게 되었다. 국내의 예를 들자면 ①국내의 결식아동 먹거리 지원사업→저소득층 가정의 어린이를 위한 공부방 지원→해체가정문제 돕기 등으로, 실직여성가장의 취업 또는 창업지원사업→여성가장 또는 가족의 위급한 의료지원사업으로 확대, 연말연시의 불우가정에게 떡국바구니 보내기 사업→독거노인을 상시 돕는 일 그리고 2000년도의 새로운 활동으로 북한어린이 돕기와 국내 외국인 노동자들의 인권보장을 위한 활동 등으로 새로운 과제를 찾아 사랑의 친구들의 손길을 펴는 노력을 하고 있다.

미국의 나라사랑어머니회의의 관심사도 그 범위가 넓어지고 있을 것으로 짐작이 된다. 지난번 5월 5일 어린이날을 기해 오지 또는 낙도의 어린이들에게 도시문화 경험의 기회를 주기 위한 사업을 지원한 것과 낙후지방도시의 어린이들을 돕거나 북한어린이 돕기에 나선 것은 미주 어머니들의 활동에도 변화가 일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무엇보다 놀라운 사실은 한국인의 미주이민사상 최초로 미주전역에 네트워크를 가진 한국여성단체가 탄생했다는 사실이었다. 이제 나라사랑어머니회는 미국사회에서 한국사회에서, 더 나아가서 지구사회에서 기여를 할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터전을 마련한 것이다. 회원들이 이번 창립 2주년을 기해 어떠한 결단을 하느냐에 따라서 제3주년을 향해 문을 여는 나라사랑어머니회의 새천년은 달라질 수 있다.

나라사랑어머니회의 임원들과 회원들이 여러차례의 모국방문시 또는 지난 2월 사랑의 친구들의 명예총재가 SCU에서 <국제사회봉사상>을 수상했을 때 LA에서 만난 나라사랑어머니회의 임원들과 비공식으로 나눈 바 있기도 한 몇 가지 제안을 하자면 다음과 같다.

1) 나라사랑어머니회 활동을 국제적인 활동으로 전환: 모국의 결식아동돕기활동은 정부가 정책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대책이 마련되면서 이제 남은 부분은 미취학 어린이들을 돕는 일로 점차 전환되어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사랑의 친구들도 힘이 축적되는 대로 도움의 손길을 북한 어린이 그리고 아프리카의 어린이들에게 펴가야 한다고 하고 있다.

지난번 명예총재인 이희호 여사가 6.13 남북정상회담을 위해 북한을 방문했을 때 그 곳의 산원에 의료기기를 전달하는 것으로, 그보다 앞서 북한의 식량지원을 위해 옥수수심기 기금조달과 옥수수구입금 지원금 전달 등으로 이미 북한어린이 돕기 활동은 시작되었다. 나라사랑어머니회의 활동도 이미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랑의 친구들과 함께 또는 직접활동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어린이돕기 국제운동은 연합해서 전개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사랑의 친구들이 유니세프를 통해 국제적인 어린이돕기를 하는 일은 유엔기구가 있는 미국의 나라사랑어머니회에게 앞장서서 하는데서 가능하리라고 믿는다. 사랑의 친구들과 별개로 추진하더라도 Global Children Foundation이라는 명칭을 지니고 있는 나라사랑어머니회가 모국의 화급한 문제가 해소되어가는 이 즈음에 국제아동돕기에 나선다는 것은 한국인의 국제활동 전개라는 차원에서도 큰 의미를 지니게 되기 때문이다.

국내에서 북한어린이 돕기 캠페인을 전개하는 가운데 “우리 주변에도 도움을 필요로 하는 어린이들이 많은데”하는 목소리가 있는 것처럼 아프리카의 어린이 문제를 걱정하는 국제운동에 이의를 제기하는 측이 없으리라는 생각은 하지 않는다. 그러나 외국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6.25 당시와 오늘의 북한상황을 지켜보면서 우리들의 사랑의 손길이 우리 안에만 머물러도 되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2) 나라사랑어머니회를 charity기구에서 여성(사회)운동체로 승화

어머니들의 따뜻한 사랑이 우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주는 일을 시작한다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나라사랑어머니회의 시작이 바로 그러한 것이었다. 지난 2년간 하나의 알찬 charity기관으로서의 소임을 유감 없이 다해왔다. 이제 나라사랑어머니운동이 미국사회에서 하나의 여성(사회)운동으로 서서히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아 제안한다.

세계화의 추세로 이제는 국경이 존재하지 않는 지구촌 사회에서 우리 모두는 살고 있다. 미국에 이민한 한국인들이 미국 사회에서 객으로서 임시생활을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는지 노파심에서 걱정해 보는데, 필요 없는 기우일 것이다.

그렇다면 미국에서 사는 한국인들이 그 사회의 하나의 주민으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으로서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시민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이시재교수(카톨릭대, 사회학과)가 정리하고 있는 시민성을 가지고 사는 것이다. 그것은 ① 자기의 생활상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행동할 수 있는 주체성, ② 공동의 실천에 참여할 수 있는 연대성, ③ 사회의 질서를 따르며 권리를 요구하고 의무를 질 수 있는 사회성, ④ 사회의 정체성과 미래를 조망할 수 있는 역사의식 등을 의미한다.

미국사회 구성원으로 사는 한국 여성들이 개인의 안정된 생활에만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사회의 시민으로서 시민정신을 가지고 시민운동에 참여해야 한다. 시민정신이란 사회를 보다 살기 좋게 발전시키려는 개혁정신과, 인간과 생명의 존엄성을 최고의 가치로 존중하는 것이다. 시민운동의 형태는 사회개혁운동, 공동체회복운동, 환경운동, 인권운동, 여성운동, 소비자보호운동, 청소년운동 등 다양하다.

3) 해외한국여성network 구성: 짧은 기간에 광대한 미주에 흩어져 있는 어머니들을 하나로 묶어낸 미국의 한국여성지도자들의 위력에 머리를 숙인다. 바라는 것은 그 지도력과 추진력으로 해외에 진출하고 있는 한국여성들을 지역별, 국가별로 조직하여 해외한국여성network를 구성하고, 국내 여성단체들과 연합하는 범한국여성network를 만들 것을 제안한다.

1년에 한 번 아니면 2년에 한 번 지역을 순회하면서 범한국여성대회를 개최하여 한민족으로서의 소속의식을 돈독히 할 뿐만 아니라 공동과제를 발굴하여 한국여성, 한국민족, 더 나아가 지구시민으로서의 한국여성의 역할을 하나가 된 힘을 가지고 당당히 감당해 내는 것이다.

4) *남북관계, 남북한공동의한계, 북한관계, 남북한공동의한계, 남북한공동의한계*
4) *남북한공동의한계* *남북한공동의한계* *남북한공동의한계*
4) *남북한공동의한계* *남북한공동의한계* *남북한공동의한계*

4) 한·중·일 여성지도자 세미나 초대: 작년 10월에 서울에서 <21세기의 한·일 여성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개최된 한·일 여성지도자 세미나에는 일본에서 전현직 총리부인들과 초당적인 여성의원들, 경제계, 언론계 등의 최고 여성지도자들 400여명과 우리나라의 대통령부인을 비롯한 각계 여성지도자들 500여명이 자리를 함께 하고 동북아지역의 여성문제를 논의한 바 있다.

금년 11월 30일에는 마찬가지로 서울에서 제2차 세미나가 개최될 예정인데, 이번에는 중국여성지도자들도 함께 한다는 데 의미가 더욱 크다. 3개국에서 각각 준비위원회가 구성되어 현재 준비중이다. 이 세미나에는 북한측 대표들도 참여하기를 바라고 있다. 가능하면 나라사랑어머니회에서도 회원들이 참여할 것을 제한하는 것이다.

제3차세미나는 2001년도에 중국에서 개최하도록 제의되어 있다. 거듭되는 3개국의 여성들의 만남을 통해서 동북아의 평화문제를 비롯한 환경문제 등 동북아의 당면문제해결에 이 지역 여성들이 함께 참여하기를 바래서이다.

V. 함께 하는데서 힘이 생긴다.

여성부 설치의 문제, 정치·경제·사회 및 정책결정기구에서의 여성의 참여 확대 그리고 그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필요한 기금 조성을 비롯한 사회분위기를 만들어 가며 한국 여성의 지도력을 우리나라의 울타리를 넘어 이웃나라, 세계의 여러 나라에 발휘하는 데에는 뭉쳐진 힘이 필요하다.

특히 미국사회의 각 분야에서 두드러진 역할을 하고 있는 한국 여성들이 나서서 앞장서고 함께 한다면 한국여성이 새 천년의 역사의 수레를 바로잡는데 기여할 것으로 믿는다.

21세기는 여성의 시대, 환경의 시대로 세계는 꿈꾸고 있다. 이 꿈의 실현에 우리 함께
나서자고 한다면 무리인가.